

# 역대급 화마 '칠레' 강타...산불 희생자 최소 112명

### 강풍·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민가 덮쳐...난개발 지역 집중 인명피해 커 2010년 강진·쓰나미 비전...정부, 발파라이소 곳곳 긴급재난지역 선포

남미 칠레 중부를 삼시간에 집어삼킨 화마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112명이 숨진 것에 더해 수백명의 생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진화와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실 소셜미디어와 국가재난예방대응청(세나프레드·Senafred)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에 따르면 중부 발파라이소주(州)에서는 지난 2일 오후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불의 기세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 영향으로 급세 거세졌다.

여기에 더해 불길은 강풍을 타고 민가쪽으로 삼시간에 번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3일에는 최대 풍속 시속 60km까지 기록될 정도로 바람이 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칠레 대표적 휴양지인 비나델마르를 비롯해 킬푸에, 비아알레마나, 리마세 등에 집중됐다. 공단 지역인 엘살토에서는 페인트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고,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도 발생했다.

국가에서 관리한 지 73년 넘은 역사 깊은 식물원은 90% 이상 소실됐고, 안에서는 근로자 가족 4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은 110km<sup>2</sup>에 달한다. 경기

수원시 전체 면적(약 121km<sup>2</sup>)에 맞먹는 규모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주택 3000~6000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특히 빈민가가 몰린 난개발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치를 집계하는 정부 부처인 'SML' (Servicio Medico Legal)은 지금까지 최소 9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시시각각 바뀌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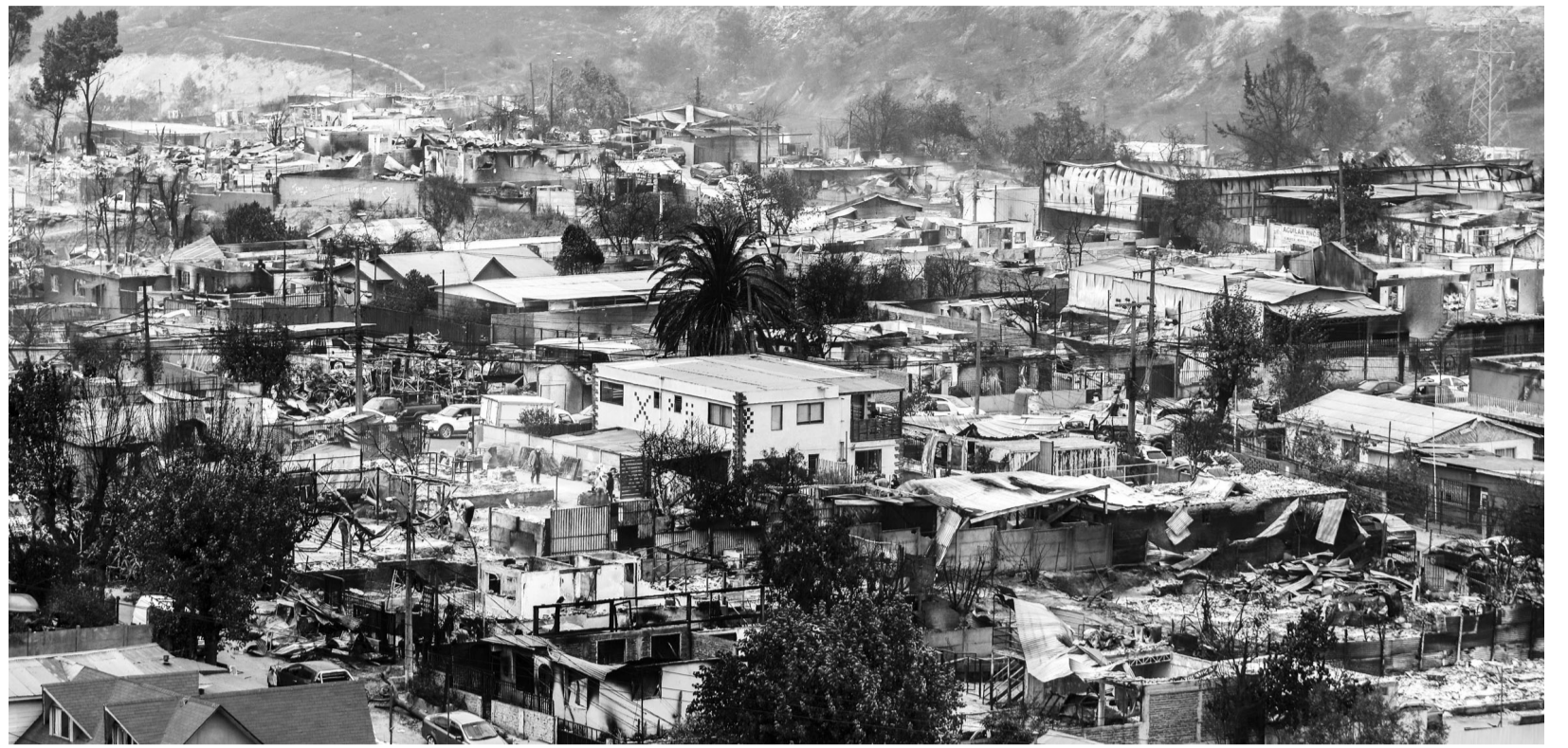
실종자 수도 100명을 넘는 것으로 엘메르쿠리오와 라테르세라 등 현지 매체는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마카레나 리파몬티 비나델마르 시장은 "생사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숫자는 200여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치에 사망자도 일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소방관과 군 장병을 동원해 진화와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총력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테르세라는 보도했다.

세나프레드는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61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중 40건은 진화 중이라고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525명



4일(현지시간) 칠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비나델마르 주택들이 전소돼 전경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1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의 사망자를 낸 2010년 2월의 규모 8.8 대지진과 쓰나미를 언급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2010년 참사 이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세나프레드는 화염에 휩싸일 위험이 있는 30여 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전날 내내 대피 알람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비나델마르 등 4개 도시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통행금지령도 내려졌다.

칠레 당국은 여러 곳의 화재 가운데 비나델마르의 라스타블라스 지역은 방화에 의한 재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발파라이소 곳곳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

운테 보리치 대통령은 전날 오후 대통령령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또 희생자 추모를 위해 5~6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부켈레 신드롬' 엘살바도르 대선...연임 유력

중미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 투표가 4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엘살바도르 국내 유권자 수는 621만 4399명(선거당국 집계 기준·외국 소재 유권자 제외)으로,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670여곳에 마련된 각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한 표를 행사했다.

이번 대선에는 나이브 부켈레(42) 대통령을 비롯해 6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이중 부켈레 대통령은 선거 전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결선 투표 없이 대권 수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강단 척결 의지로 살인 사건 발생률(2015년 105.2건→2023년 2.4건·인구 10만명당)을 극적으로 떨어트리면서, 레임덕은 커녕 아이돌 같은 인기몰이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2019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 제3당 후보로 출마해 30년간 이어진 양당 체제를 깬 그는 소셜미디어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거나, 취임 첫해 유엔총회 연단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셀피를 찍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취임 초반 좌우 양당이 장악했던 국회에 출석할 때는 무장 군경을 대동하고, 수감자들을 속웃

만 입힌 채 빼곡히 포개 얹힌 모습의 사진을 수시로 공개하는 등 때론 '선'을 넘는 모습도 서슴지 않았다.

국가 예산을 동원한 비트코인 투자로 경제난 극복 재원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실 웹사이트 나이트브래커를 보면 이날 현재 이 나라는 투자액 1% 안팎의 이득을 보고 있다.

부켈레 정부의 그림자도 짙다.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무고한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번 재선 도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 나라 헌법에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때문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이라는 '꼼수'를 썼다.

여दा야소 국회 역시 각종 논란에 눈 감은 데 더해 부켈레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법 조항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켈레가 당선되더라도 연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메시 노쇼, 홍콩이 분노

축구팬들 '환불하라' 아우

홍콩에서 열린 홍콩 베스트11 팀과 프리시즌 친선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향해 현지 팬들의 아우가 쏟아져 나왔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는 4일(한국시간) 홍콩의 홍콩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홍콩 베스트11 팀을 4-1로 꺾었다.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켰다.

AFP 통신에 따르면 홍콩스타디움을 메운 약 4만 명의 팬들은 후반전 중반 이후로도 메시가 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메시 나와!"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후반 35분 이후부터는 "환불, 환불"을 연신 외치는 아우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팬들이 쏟아내는 항의는 최고조에 달했다.

경기 뒤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이 친선전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에 인사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으나 팬들은 베컴에게도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 "바이든, 이스라엘 방해...트럼프 더 좋을 것"

극우 안보장관 주장

이스라엘 우익 연립여당 소속 극우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집권이 이스라엘에 더 낫다고 주장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마스를 진압하는 데 이스라엘에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현직 장관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은 우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대신 (가짜지구에) 인도적 구호물자와 연료를 주느라 바쁘고, 이는 결국 하마스로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바랐다.

그는 2022년 12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연정이 출범한 이후 해외 언론으

로는 처음으로 WSJ과 인터뷰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또 테러 혐의로 수감된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하는 조건이 포함된 협상이나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협상에는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네타냐후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하마스 등에 붙잡혀 있는 인질과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 수천 명을 교환하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엑스(X, 옛 트위터)에 "(하마스와의) 무모한 합의 = 정부 해체"라고 썼다. 이런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그가 엑스에 글을 올리고 몇 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군은 가짜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수천 명의 테러범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은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논의의 재개 등의 조건을 담은 휴전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높아진 지지도를 무기로 네타냐후 정권을 압박하면서 휴전 협상의 최대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